호국보훈의 달

월간 순국 殉國

통권341호

특별기고(1) 프랭크 윌리엄 스코필드 교수

의병의 날 특집(1) 황병학 의병장 학술회의 배경 및 취지

의병의 날 특집(2) 의병운동의 이념적 특성과 현대적 의의

의병의 날 특집(3) 전국 의병로 및 의병장로

연재만화 임병찬 선생

www.soongook.org

사단법인 대한민국순국선열유족회

부수인증매체 한국ABC협회

ISSN 1599-9068

2019 | 6

6·10만세운동, 자유를 절규하다

권 용 우
단국대 명예교수

1919년 3월 1일, 우리 민족은 일제의 무단정치에 항거하여 전국 각처에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총궐기하였다. 이것이 '3·1독립운동'의 시작이었다. 손병희(孫秉熙) 등 민족대표 33인이 서울 인사동(仁寺洞) 태화관(泰和館)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대한독립 만세를 삼창함으로써 3·1독립운동의 불길이 3천리 방방곡곡으로 퍼져나갔다.

한편, 같은 시각 탑골공원에서는 각급학교 학생 및 시민 5,0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경신학교(儆新學校) 졸업생 정재용(鄭在鎔)이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학생과 시민이 태극기를 흔들며 거리로 뛰쳐나갔다. 그리고, 목이 터져라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 이날, 탑골공원을 출발한 시위군중들은 광교·서울시청 앞·남대문을 지나, 서울역·의주로·정동·미국 영사관·이화학당을 돌아서 광화문으로 그 행렬을 이어갔다. 이들 시위군중들은 제지하는 일본 군·경을 물리치고, 민족의 피맺힌 통한을 절규했다.

이 때, 3월 3일에 있을 고종황제의 인산(因山)에 참례하려고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민중들이 가담함으로써 만세 소리는 하늘을 찔렀다. 오랫동안 쌓였던 민족의 울분이 한꺼번에 폭발하였다. 서울에서 독립선언이 있은 직후, 그 불길은 전국 곳곳으로 퍼져나갔다. 평양·의주·선천·안주·원산·진남포로, 그 다음 날에는 함흥·수안·황주·중화·강서·대동·해주·개성으로 만세시위의 불길은 그칠 줄 몰랐다. 어디 그 뿐이었던가. 해외의 동포사회에까지 확산되어 만주·블라디보스톡(Vladivostok)·미주 등 우리 동포가 거주하는 곳이면 어느 곳에서나 만세시위가 일어났다. 이처럼 3·1독립운동은 우리 2천만 국민과 해외의 동포가 하나가 되어 펼쳤던 우리 민족의 자유와 대한의 독립을 세계만방에 선포한 거족적인 운동이었다.

이로써 일제의 가증스런 만행과 억압에 항거하는 우리 한민족의 독립만세소리는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이로써 오랫동안 국제사회에 잊혀져 있던 한국과 한민족이 다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이웃한 중국은 물론 구미 여러 나라의 언론들도 일본의 한국에 대한 무력통치를 비난하면서, 한국의 3·1독립운동에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때, 3·1독립운동은 비록 그 궁극적인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지만, 우리 민족의 독립에 대한 염원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며,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수립케 하여 새로운 차원에

서 독립투쟁을 이어갈 수 있게 하였음은 큰 의미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보다 더 큰 의미는 민중의 정치의식이 개화·태동하여 국민국가의 건설을 지향한 민중운동으로 발전하였다. 그리고, 이는 우리 후세들에게 소중한 정신적 유산을 남긴 값진 교훈으로 기록되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순종황제의 인산일에

3·1독립선언이 있은 때로부터 7년이 지난 1926년 6월 10일, 이 날은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제인 순종(純宗, 재위:1907~1910)의 인산일이었다. 4월 26일, 순종황제의 붕어 소식이 전해지자 서울 시내의 모든 상가가 철시(撤市)하고, 각급학교도 일제히 임시휴교에 들어갔다. 그리고, 돈화문(敦化門) 앞에는 호곡하는 민중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마지막 황제를 잃은 민중들의 슬픔이 오죽했겠는가. 그 동안 일제의 무력통치하에서 탄압받으면서 숨죽이고 지내야했던 민중들이 하나 둘 돈화문 앞으로 모여들었다. 민중들은 그 동안 쌓였던 울분을 토해냈다. 그리고, 그들은 목놓아 울었다. 순종황제의 붕어는 우리 민중들로 하여금 거대한 힘으로 모아졌다. 각급학교 학생들은 검은 완장을 달고 애도의 예를 올리는 한편, 6월 10일 인산일을 기하여 만세운동을 전개할 계획을 세웠다. 이에 앞장 선 단체는 고려조선공산당과 조선학생과학연구회였다. 특히, 고려조선공산당은 권오설(權五卨)을 총책임자로 하여 「6·10운동투쟁특별위원회」를 조직하고, 태극기와 격문을 만들었다. 이와는 별도로 중동고등보통학교와 중앙고등보통학교 학생들도 독자적으로 만세시위를 준비하였다.

6월 10일, 이들 학생들은 순종황제의 인산행렬이 돈화문을 출발하여 종로 3가 단성사 앞을 지날 무렵 운집한 군중들 사이로 뛰어나와 격문을 뿌리며,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 그리고, 이를 뒤따른 학생들과 민중들도 태극기를 흔들며 '일본 제국주의 타도!', '2천만 동포야, 원수를 몰아내자!'를 외쳤다. 이 때, 만세시위에 참여한 학생은 2만 4,000여 명에 이르렀다. 이 날, 서울에서 시작된 만세시위는 전국 각지로 확산되었는데, 인천·개성·평양·원산·대구·공주·순창·마산 등지에서 많은 호응이 있었다. 이것이 제2의 3·1독립운동으로 불리워지는 '6·10만세운동'이다.

이에 당황한 일제는 1919년의 3·1독립운동과 같은 전국적인 만세시위로 확산될 것을 염려하여 철저한 경계태세를 갖추었는데, 그들은 조선주차군사령부의 5,000여 명의 군대를 동원하여 삼엄한 경계를 펼쳤다. 부산과 인천에는 함대를 정박시켜놓고 만약에 대비하였다. 이 만세시위로 연희전문학교 이병립(李炳立)·박하균(朴河均), 경성제국대학 이천진(李天鎭), 중앙기독교 청년회학관 박두종(朴斗鍾), 중동고보 곽재형(郭載炯)·황정환(黃廷煥)·김재문(金載文), 중앙고보 이선호(李先鎬)·이동환(李東煥)·박용규(朴龍圭)·류면희(柳冕熙) 등 천여 명이 넘는 학생이 체포·투옥되었으며, 11월 3일 재판에 넘겨졌는데 이들은 참으로 당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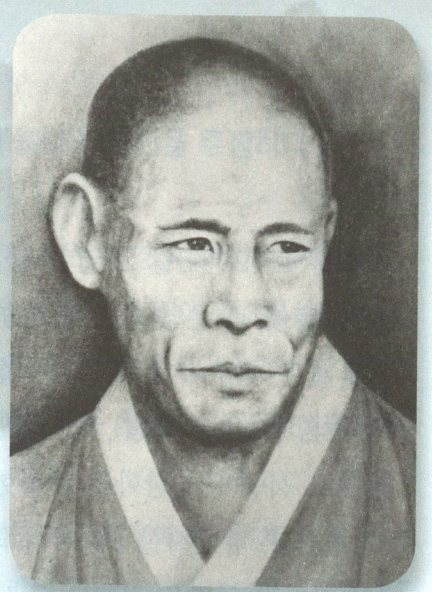
함 모습이었다고 한다. "순종황제가 승하한 후 조선학생회관에 모여 인산일을 기하여 거사할 것을 의논하고, 격문 1만여 장을 인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재판장이 "대한독립 만세를 무슨 목적으로 불렀는가?"라는 질문에 "그것은 세 살된 어린아이도 다 아는 일이니 구태여 물을 필요가 없다"고 답변함으로써 재판장을 당혹스럽게 만들었다.

또, 고려조선공산당 권오설도 6월 7일에 경기도 경찰부에 검거되었으며, 이준태(李準泰)도 같은 혐의로 검거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들 외에도 송진우(宋鎭禹)·정인보(鄭寅普)도 6·10만세운동의 배후인물로 지목되어 종로경찰서에 불려가서 취조를 받기도 하였다.

6·10만세운동은 비록 실패로 끝났지만, 우리 젊은 학생들의 애국의 열기는 가슴에 남아 있었다. 그 애국정신이 1929년 11월 광주학생운동으로 다시 부활하였다. 그리고, 6·10만세운동은 그 준비과정에서 민족주의진영과 사회주의진영의 협력이 자리잡고 있었는데, 이는 민족계몽운동을 이끌어간 신간회(新幹會)의 태동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는 데에 역사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나라를 사랑하는 젊은이들의 자유를 위한 절규를 가슴에 세기면서, 이 글을 마무리한다.

6월의 독립운동가



한용운(韓龍雲)

1879. 8. 29~1944. 6. 29